

‘지고는 못사는 아이’ 사회성 키우는 방법

유난히 지는 것을 못 견디는 아이들이 있다. 이런 아이들은 자기의 생각에 매우 강하게 집착하여 타인의 요구나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는 고집불통인 경우가 많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눈에는 아주 까칠하고 다분히 반항적인 아이로 보인다.

‘베이비트리’ (babytree.hani.co.kr)에 따르면 이런 아이들에게는 먼저 다음과 같은 사회적 규범을 먼저 가르쳐야 한다.

- 타인과 함께 하는 게임이나 경기에서는 내가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는 법이다.
- 당장 억지를 부려서 승리할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함께 놀 수 있는 친구를 잃게 된다.
- 친구들 앞에서 억지를 부리고 고집을 부리면, 친구들 사이에서 자신의 평판이 나빠진다.

부모들은 이러한 규범들을 아이들이 천천히 체득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첫째, 아이에게 억지 승리가 나중에는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사실을 이해시킨다. 그러나, 이런 이해와 설득은 아이가 충분히 차분해진 다음에 해야 한다. 흥분한 아이에게 이성적인 이야기는 아이의 머리와 닿지 않는다. 면전에서 면박을 주거나 비난을 하는 것은 아이를 더 공격적으로 만들 수 있으니 삼가해야 한다.

둘째로는 첫째의 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평소에 육하는 성질로 인해 사태가 악화되지 않도록 흥분을 가라앉히는 방법을 메뉴얼처럼 가르쳐야 한다. 먼저 시행해 볼 방법은 스스로 차분해지는 혼잣말을 하는 것이다. ‘차분해지자’, 혹은 ‘흥분하면 결국 지는 거다’ 등과 같은 혼잣말을 평소에 연습해서 흥분하고 다투는 상황이 되면 되뇌이면서 흥분을 가라앉히도록 연습하는 것이다.



다른 방법으로는 가능하다면 즉시 사건 현장을 피하는 것이다. 다툼이 생길 것 같거나 사고를 칠 위험이 있으면 ‘바람 좀 쐬고 올게!’ 라는 말과 함께 그 자리를 피하도록 가르쳐 보는 것이다.

셋째로는 아이의 이런 특성 혹은 기질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마음으로 이해하고, 장기적으로 조금씩 가르치는 인내가 필요하다. 10살 이전에는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반추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스스로 이런 규범을 깨닫기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지속적으로 교육하는 것만큼이나 아이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아이의 성격을 단기간에 바꾸기는 매우 어렵다. 목표를 낮게 잡고 조금씩 노력해가는 자세가 중요하다. 또한 아이의 나뉠 성격 특성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성격을 고치겠다고 아이와 싸우기보다는, 어느 정도 수용하고 아이와 좋은 관계를 맺는게 더 낫다.

사진=shutterstock

가든그로브 비타민 전문점

Organic Vitamins

- 500종류 정도의 비타민과 원료구비
- 비타민 원료 : 아사이, 마퀴, 블루베리, 고지베리베리, 아로니아, 그라비올라, 크랜베리, 비타민나무, 여주농축액, 차콜, 콜라겐, 블랙커런트, 모링가, 로얄제리원액, 페루산삼, 마카, 트리블러스(산삼보다 높은 사포닌 함유)



이제 비타민은 전문점에서 정확한 진단 후 복용하세요.



Tel. (714)534-4938
9972 Garden Grove Blvd #G
Garden Grove, CA 92844



용문루

GRAND OPENING

Authentic Chinese Korean Cuisine
Eat Good, Feel Good



각종 파티 및 단체 모임 환영
파티룸 10~50명 수용 가능

* waiter, waitress 구합니다.*

용문루 T.626.363.4961
www.yongmoonlu.com

월,수,목,금 11:30am ~ 3:00pm
4:30pm ~ 9:00pm 토,일 11:30am ~ 9:00pm
19240 Colima Rd. Rowland Heights, CA 91748